

유란시아서

<< [제 148 편](#) | [부분](#) | [내용](#) | [제 150 편](#) >>

제 149 편

두 번째 전도 여행

149:0.1 (1668.1) **갈릴리**에서 두 번째 대중 전도 여행은 서기 28년 10월 3일 일요일에 시작되었고 거의 석 달 동안 계속되어 12월 30일에 끝났다. 이 노력에는 **예수**와 열두 사도가 참여했고 새로 모집한 117명의 전도사 집단, 그리고 관심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 여행에서 **가다라** · **프톨레마이스** · **야피아**, **다바리타** · **메기도** · **예즈릴**, **스키토폴리스** · **타리케아** · **히포**, **가말라** · **벳세다** **줄리아스**,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방문했다.

149:0.2 (1668.2) 이 일요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에게 새 전도사들에게 마지막 책임을 맡기는 말씀을 부탁했으나 **예수**는 남들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 아니라 하면서 물리쳤다. 마땅한 검토를 거친 뒤에, **야고보 세배대**가 책임 지우는 선서를 시행하기로 결정이 내렸다. **야고보**의 논평이 끝났을 때 **예수**는 전도사들에게 말했다: “이제 떠나서 너희가 책임을 맡은 대로 일하러 떠나라, 나중에 너희가 능력과 충성심이 있음을 보였을 때,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하도록 너희를 세우리라.”

149:0.3 (1668.3) 이 여행에는 오직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났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저마다 전도사를 열두 명쯤 데리고 갔으며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나가는 동안 그들과 밀접하게 연락을 유지했다.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자마자 사도들이 세례를 주곤 하였다. **예수**와 두 동반자는 이 석 달 동안 널리 여행했다. 전도사들의 일을 지켜보고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을 격려하느라고 때때로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했다. 이 둘째 전도 여행 전부가 주로, 새로 훈련받은 이 전도사 117명의 무리를 위하여 실용적 경험을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었다.

149:0.4 (1668.4) 이 기간 내내, 그리고 그 뒤에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침내 떠날 때까지, **다윗 세베대**는 **벳세다**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하늘나라 일을 위하여 영구 본부를 유지했다. 여기가 땅에서 **예수**의 일을 위한 정보 교환소였고 사자들의 봉사를 위하여 연결하는 역(驛)이었고, **다윗**은 **팔레스타인**의 여러 곳과 인접 지역에 있는 일꾼들 사이에서 이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것을 모두 솔선해서, 그러나 **안드레**의 승인을 얻어서 했다. **다윗**은 급히 커지고 뻗어 나가는 하늘나라 사무의 정보 분과에서 40에서 50명의 사자(使者)를 고용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다윗**은 예전의 고기잡이 일에 얼마큼 시간을 써서 어느 정도 자신을 부양했다.

1. 널리 알려진 예수의 이름

149:1.1 (1668.5) **벳세다**의 캠프가 해산될 때가 되자, **예수**의 이름은 특히 병 고치는 자로서, **팔레스타인**의 구석구석, 그리고 **시리아**와 그 주위의

여러 지역 전체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들이 **벳세다**를 떠난 뒤에 몇 주 동안, 병자들이 계속 도착했다. 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다윗**으로부터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아내고서 **예수**를 찾으러 가곤 하였다. 이 여행에서 **예수**는 병 고치는 기적이라 부르는 일을 일부러 전혀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병자 몇십 명이 병 고침을 찾게 한 맹렬한 믿음의 치유 능력의 결과로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

149:1.2 (1669.1) 이 사명을 수행하던 무렵에 — 그리고 땅에서 **예수**의 여생 동안 내내 — 특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석 달 동안 여행하는 과정에서 **유대 · 이두미아 · 갈릴리 · 시리아 · 투로 · 시돈**으로부터, 또 **요단** 강 건너로부터, 1백 명이 넘는 어른과 아이들이 **예수**의 이러한 무의식 치유의 수혜자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 퍼뜨렸다. 뜻밖에 고침받은 이 경우를 지켜볼 때마다, **예수**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수혜자들에게 직접 당부하곤 했는데도 그리하였다.

149:1.3 (1669.2) 뜻밖에, 즉 의식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이 여러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계시 받은 적이 없다. 몇몇 경우에 단지 “권능이 내게서 나갔음을 내가 깨닫노라” 말한 것 외에 주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 치유가 일어났는가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 어느 아픈 아이가 그를 만졌을 때 말씀하였다: “생명이 내게서 나갔음을 내가 깨닫노라.”

149:1.4 (1669.3) 이러한 의식하지 않고 치유하는 사례들의 성질에 관하여 주로부터 직접 말씀이 없는 마당에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설명하려는 시도는 주제넘을 터이지만, 모든 그런 치유 현상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관참을 것이다. 병 고치는

기적으로 보이는 이 일들은, 땅에서 **예수**가 봉사를 베푸는 과정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강력하고 유효하고 관련된 다음 세 가지 영향이 공존한 결과였다고 우리는 믿는다:

149:1.5 (1669.4) 1. 끈질기게 치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강하고 지배적이고 생생한 믿음이 있는 것. 아울러 순전히 육체의 회복보다 오히려 그 영적 이익 때문에 그러한 치유가 바람직하다는 사실.

149:1.6 (1669.5) 2. 그러한 인간의 믿음과 동시에, 육신화되고 자비에 지배된, **하나님의 창조 아들의** 큰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 그는 몸 안에 거의 한없고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치유 권능과 특권을 실제로 소유했다.

149:1.7 (1669.6) 3. 인간의 믿음과 **창조자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인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인격으로 표현된 것임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필요와 이를 채우는 신의 권능이 접촉할 때 **아버지**가 달리 뜻하지 않으면, 그 둘이 하나가 되고 인간 **예수**가 의식하지 않고서 치유가 일어났지만, 즉시 신다운 성품이 이를 인식했다. 그러면 병을 고친 이 많은 사례(事例)의 설명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알려진 큰 법칙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렇다: **창조 아들이** 바라고 영원한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

149:1.8 (1669.7) 그러면 **예수**가 친히 계신 앞에서, 어떤 형태의 심오한 인간의 믿음은 우주의 어떤 창조 세력, 그리고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아주 밀접히 연결된 성격자들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참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따라서 **예수**는 그가 계신 앞에서 사람들이 힘찬 개인적 믿음으로 스스로 고치도록 흔히 버려두었다는 것이 기록된 사실이 된다.

149:1.9 (1670.1) 다른 여러 사람은 온전히 이기적 목적으로 치유 받기를 추구했다. **투로**의 어느 부유한 과부는 수행원들과 함께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 **갈릴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살 물건인 듯, 점점 더 많은 돈을 계속 내밀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다. 얻고자 한 것은 오직 육체의 병의 치유였다.

2. 사람들의 태도

149:2.1 (1670.2) **예수**는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았다. 그의 가르침이 그가 제시한 대로 간직되었더라면, 그에 관한 유일한 해설(解說)이 땅에서 사신 그의 생애가 허락하는 해석, 영감을 주는 해석이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가 빨리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초기 추종자들이 특정한 민족 · 종족 · 종교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다만 그러한 가르침을 모든 다른 민족 · 종족 · 종교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149:2.2 (1670.3) 사도 **바울**은 당대에 **예수**의 가르침을 특정한 집단들이 호감을 가지고 주목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편지를 많이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도 똑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담은 것이라고 발표하려는 자들이 후일에 이 중에 더러를 수집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주의 복음을 더 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허다하다. 페르시아의 신비교로부터 온 많은 가르침과 그리스 철학의 많은 것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는 외에도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149:2.3 (1670.4) 1. 기독교의 속죄(贖罪) 교리 — **예수가 아버지의** 엄격한 응보를 만족시키고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하는 희생된 아들이라는 가르침 — 이 보여주다시피, 복음의 가르침을 **유대인의 신학(神學)**과 직결시키려 하는 노력. 이 가르침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칭찬할 노력에서 생겼다. **유대인**을 설득하려는 이 노력은 실패했어도, 모든 이후 세대에 많은 정직한 사람을 헛갈리게 하고 따돌리는 데 실패하지는 않았다.

149:2.4 (1670.5) 2. 주의 초기 추종자들이 저지른 둘째로 큰 잘못, 모든 후일의 세대가 영구하게 지속한 큰 잘못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주 온통 **예수**라는 인물에 관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인격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그의 가르침을 가리도록 작용했고, 이 모두가 **유대인 · 이슬람교인 · 힌두교인**, 그리고 기타 동방(東方)의 종교인이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수**의 이름을 지닐까 싶은 종교에서 **예수** 본인이 차지하는 자리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배려가 영감을 받은 그의 생애가 빛을 잃게 만들거나 구원하는 그의 말씀 —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이 형제임** — 을 대신하도록 버려두고 싶지 않다.

149:2.5 (1670.6)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공통으로 지니는 진리를 인정하고서 (이 중에 많은 것이 직접 · 간접으로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다른 종교들에 접근해야 하며, 한편 지나치게 차이를 강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149:2.6 (1671.1) 바로 그 시절에, **예수**의 이름은 주로 병 고치는 자로서 얻은 평판에 달려 있었지만 계속 그랬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자, 갈수록 더욱 사람들이 영적 도움을 받으려고 그를 찾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아주 직접, 즉시 호소한 것은 육체의 치유였다. 도덕적으로 종살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 찾았고 그는 변함없이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을 다루는 것에 관하여 조언(助言)을 구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왔다.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생명의 빛을 드러냈다. 귀는 언제라도 인류의 슬픔을 들으려고 열려 있었고, 그는 보살핌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도와주었다.

149:2.7 (1671.2) 바로 **창조자**가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하여 땅에 계실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이른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奇蹟)에 접근하기를 배우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한테 다가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나사렛 예수**가 땅에서 초물질 행위를 연출했던 유일한 종교 창시자였는데도 이 훈계는 틀림없다.

149:2.8 (1671.3) 땅에서 **미가엘**의 사명 중에 가장 놀라운 혁신적 특징은 여자에 대한 태도였다.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인사를 건네지 않기로 되어 있던 시절과 세대에, **예수**는 셋째 **갈릴리** 여행과 관련하여 감히 여자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데리고 갔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는 것보다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하고 선포했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최고의 용기를 가졌다.

149:2.9 (1671.4) 오랜 세월에 걸쳐 무시되어 잊혀지고 노예처럼 고된 일을 하는 상태로부터, 한 세대 안에 **예수**는 여자들을 구조했다. 후일에 여자에 대한 태도에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를 도덕적 용기가 모자란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제넘게 가져간 종교에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다.

149:2.10 (1671.5) **예수**가 사람들과 섞이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가 도무지 그 시절의 미신에 매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는 종교적 편견이 조금도 없었고, 결코 관대함이 모자라지 않았다. 사회에 대하여 적대감과 비슷한 아무것도 마음 속에 지니지 않았다. 조상의 종교에 있는 좋은 것에 순응했으나 미신과 속박과 같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서슴지 않고 무시했다. 자연의 재난, 뜻밖의 사고, 기타 재앙은 신이 내리는 심판이나 섭리의 신비로운 작용이 아니라고 감히 가르쳤다. 의미 없는 예식에 종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했고, 물질적 예배의 잘못됨을 밝혔다. 그는 대담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했고, 육체를 가진 필사자가 정말로,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가르쳤다.

149:2.11 (1671.6)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참된 종교의 표시 (表示)라고 했을 때, **예수**는 조상의 모든 가르침을 초월했다. 전통 대신에 현실을 존중하였고 허영과 위선이 가득한 모든 허식을 치워버렸다. 그래도 두려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을 퍼붓거나 그 시대의 종교 · 사회 · 경제 · 정치 관습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싸우기 좋아하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점진적 진화를 부르짖는 이였다. 동료들에게 있어야 할 우수한 것을 동시에 제공할 때에야 그는 지금 있는 것을 없애는 일에 들어갔다.

149:2.12 (1672.1) **예수**는 강요하지 않고서 추종자들로부터 복종을 얻었다. 그가 친히 부른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만 제자가 되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마음을 끄는 힘을 가졌지만 독재자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아무도 그의 지시를 분개하지 않았다. 제자들에 대하여 절대 권한을 가졌지만, 아무도 항의한 적이 없었다. 추종자들이 그를 주라고 부르도록 두었다.

149:2.13 (1672.2)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을 품은 사람이나 그의 가르침에 정치적 위험이 있음을 식별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주를 찬미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권위에 놀랐다. 뒤처지고 성가시게 구는 질문자들을 다루면서 참을성을 보인 것에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의 봉사 활동 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오직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음 속에 꼭 붙들고 있으려고 작정했던 해악과 잘못을 뒤집어엎도록 정해진 진실을 **예수**가 옹호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그를 미워했다.

149:2.14 (1672.3) 그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강하고 특이하게 매혹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군중은 그저 품위 있는 말씀을 듣고 소박한 생활을 구경하려고 몇 주 동안 따라다니곤 하였다. 헌신하는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 애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욱 사랑했다. 이 모두가 아직도 참말이다. 오늘날도, 그리고 모든 미래 시대에, **하나님**인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3.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149:3.1 (1672.4) 서민들이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호의로 받아들였는데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놀라고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체계 있는 독단적 신학을 형성하였다. **예수**는 경우가 닿는 대로 가르친 선생이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다. **예수**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비유를 들어 가르쳤다. (그의 말씀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비유를 썼을 때 그 목적을 위하여 이야기의 꼭 한 모습을 이용하려고 머리를 썼다. 그의 비유로부터 우화를 지어내려고 애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관하여 많은 그릇된 관념이 생길 수 있다.)

149:3.2 (1672.5)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젊은 **아브라함**이 최근에 전향한 결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세 첩자가 도망한 것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으며, 이들은 이제 이 둘째 **갈릴리** 전도(傳道) 여행에 전도사들과 함께 나다녔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편견에 더욱 눈이 멀었고, 한편 하늘나라 복음의 매력 있는 진실을 계속 물리침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안에 깃드는 영의 호소에 귀를 막을 때, 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149:3.3 (1672.6) **벧세다** 캠프에서 전도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는 연설을 마치면서 말했다: “너희는 몸과 머리 속에서 — 감정으로 —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한결같은 것은 깃드는 영이라. 신다운 영들이 어느 정도 체험의 성질과 범위가 다를지라도, 저희는 어떤 영적 호소에도 한결같이 반응하느니라. 오직 이 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에게 호소함으로 인류는 언제라도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가 복음의 영적 호소에 마음 문을 닫았다. 이날부터 계속, 주의 파멸을 계획하고 일을

꾸미기를 그치지 않았다. 종교범으로서, 유대인의 신성한 율법의 으뜸가는 가르침을 어긴 자로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선고(宣告)하고 처형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4. 전도 여행의 진행

149:4.1 (1673.1) 이 전도 여행에서 **예수**는 대중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찌다가 머무른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에서, 신자들과 함께 저녁 수업을 많이 열었다. 어느 날 이 저녁 시간에, 새로 된 어느 전도사가 **예수**에게 성내는 것에 대하여 물었고, 주는 다른 것들과 함께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였다:

149:4.2 (1673.2) “성내는 것은 무릇, 영적 성품이 지능과 육체의 두 성품을 제어하지 못한 척도를 가리키는 물질적 현상이라. 성내는 것은 너그러운 형제다운 사랑이 모자라고 자존심과 자제가 모자람을 가리키느니라. 성내는 것은 건강을 소모하고, 지능의 질을 떨어뜨리며 인간의 혼을 가르치는 영 선생을 방해하느니라.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느니라,’ 사람은 ‘성이 나서 스스로를 상하느니라’ 함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더디게 성내는 자는 큰 이해심을 가졌고’ 한편 ‘급히 성내는 자는 어리석음을 찬양하느니라’ 하는 것을? ‘부드러운 대답이 진노를 거두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모진 말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신중함은 진노를 늦추며’ 한편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르는 자는 담이 없어 방어할 수 없는 도시와 같다’ 함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노하는 것은 잔인하며 성내는 것은 부당하니라.’ ‘성난 자는 싸움을 부채질하고 격노한 자는 계율을 많이 어기느니라.’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지 말지니, 분노가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 쉬는 까닭이라.’” 말씀을 그치기 전에, **예수**는 이어서 말했다: “사랑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서, 신의 아들인 지위와 어울리지 않게 동물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경향으로부터 영 안내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149:4.3 (1673.3) 바로 이 기회에 주는 그 무리에게 차분한 인격의 소유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직업을 통달하기까지 그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지나친 전문화를 향하고 일생의 활동에 생각이 좁아지고 제한하는 모든 경향을 한탄했다. 어떤 미덕이라도 지나치게 실행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예수**는 늘 절제를 외치고 일관성 — 생활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 — 을 가르쳤다. 지나치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 심각한 불안감으로 변할 수 있다, 열심이 계속되면 광신(狂信)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수**는 옛 동료들 중 한 사람에 관하여 논의했는데, 그의 공상은 환상적이고 쓸모 없는 사업을 하도록 이끌었다. 동시에 **예수**는 지나친 보수적 평범은 지루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149:4.4 (1673.4) 다음에 **예수**는 용기와 믿음의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때때로 이것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무모(無謀)와 과신(過信)으로 이끄는가 강론하였다. 또한 어떻게 조심과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면 비겁과 태만으로 이끄는가 보여주었다. 말씀 듣는 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온갖 성향을 피하면서, 독창성을 살리려고 애쓰라고 훈계하였다. 감상적이 되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보이며, 신성한 체하지 않으면서 경건하라고 타일렀다. 두려움과 미신에 매이지 않고 공손하기를 가르쳤다.

149:4.5 (1674.1) 동료들을 감동시킨 것은 **예수**가 차분한 인품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자체가 그 가르침의 본보기였다는 사실이다. 긴장과 폭풍 한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적들은 그를 잡으려고 계속 덫을 놓았지만, 결코 그를 움아매지 못했다.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이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썼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를 토론에 말려들게 하려 했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사람을 깨우치고 위엄이 있고 단호하였다. 강론하다가 가지가지의 물음으로 중단되었을 때, 그의 대답은 언제나 의미가 깊었고 확실하였다. 적들의 계속된 압력과 맞서면서, 한 번도 비열한 술수를 쓰지 않았고, 그들은 서슴지 않고 온갖 종류의 거짓되고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149:4.6 (1674.2) 많은 남녀가 생계를 잇는 직업으로 어떤 분명한 업무에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이 참말이지만, 그런데도 땅에서 사는 대로, 인생에 대하여 두루 문화적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참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동료의 생활과 행적을 모르고 지내면서 만족하지 않는다.

5. 만족에 관한 교훈

149:5.1 (1674.3) 열심당원 **시몬**의 감독 하에서 일하는 전도사 무리를 **예수**가 찾아보았을 때, 저녁 회의 동안에 **시몬**이 주께 물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하나이까? 만족은 종교적 체험의 문제이나이까?” 다른 것들 가운데, **시몬**의 물음에 대답하여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149:5.2 (1674.4) “**시몬**아,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자연히 더 행복하니라. 많은 것, 허다한 것이 사람이 자신 안에 사는 **아버지**의 영이 이끌고 지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느니라. 성서에서 너는 현자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니, 마음 속의 모든 구석을 훑어보느니라.’ 또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필사자들이 말하느니라. ‘경계선이 내가 기뻐하는 곳에 떨어졌구나. 옳거니, 나는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올바른 자의 작은 재산이 악한 자 여럿의 재산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마음 속에서 만족할 것임이라.’ ‘즐거운 마음은 얼굴빛을 밝게 하며 또한 계속되는 잔치이라. 주를 경외하고 조금 가진 것이 큰 보물과 아울러 골칫거리를 가진 것보다 좋으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쓴 나물로 저녁 먹는 것이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도다. 올바르게 조금 가진 것이 옳지 않게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낫도다.’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좋으니라.’ ‘평온하게 한 줌 가진 것은 슬퍼하며 영이 괴로운 가운데 넘치게 풍부한 것보다 나으니라.’

149:5.3 (1674.5) “사람의 많은 슬픔은 포부를 이루지 못하여 실망함으로, 그리고 자존심을 다침으로 생기느니라. 땅에서 일생을 최선을로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의무일지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힘쓰는 뒤에 사람들은 즐겁게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저희 손에 들어온 것을 최선을로 이용하는 머리를 써야 하느니라. 사람의 허다한 문제가 모두 자신의 평상시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의 흠에서 생기느니라. ‘사악한 자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달아나느니라.’ ‘사악한 자는 사나운 바다와 같으니, 쉴 수 없지만 그 물이 더러운 것과 쓰레기를 던져 올리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느니라.’

149:5.4 (1674.6) “그러면 거짓된 평화와 일시의 기쁨을 찾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과 신의 아들이라는 보장을 찾을지니, 이것들은 정신적 안정과 만족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낳느니라.”

149:5.5 (1675.1) **예수**는 도저히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로 여겼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이 세상이 오히려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영원한 불멸의 영들이 태어나는 구체,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보았다.

6. “주를 두려워하는 것”

149:6.1 (1675.2) **가말라**에서 저녁 회의 동안에, **빌립**이 **예수**에게 말했다: “주여, 어찌하여 성서는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라’ 가르치며, 한편 당신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르침을 조화시켜야 하리이까?” **예수**는 **빌립**에게 대답했다:

149:6.2 (1675.3) “아이들아, 네가 그렇게 묻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아니하노라. 시초에는 오직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신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온 것은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아들이 애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보답하도록 당기는 힘으로 너희가 **영원자**를 예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자 함이라. 노예처럼 두려워서, 질투하고 진노하는 임금인 **하나님**을 지겹게 섬기라고 너희를 족치는 속박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정하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숭고하게,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길로 즐겁게 마음이

이끌리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노라.

149:6.3 (1675.4)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단계를 거쳐서 경외하고 공경하는 높이까지 올라오면서, 연속된 여러 시대에 다른 뜻을 가졌느니라. 이제 공경함에서 시작하여 인식(認識)하고 깨닫고 이해함을 거쳐서 사랑하는 높이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이끌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인식할 때, 사람은 **최상위**를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비로소 이해하고 체험할 때, 사람은 그렇게 좋고 완전한, 우주의 영원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도록 마음이 끌리느니라.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 이를 사명이라.

149:6.4 (1675.5) “충명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에서 좋은 선물을 받을까 하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아들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풍부히 받았은즉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아이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은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을 누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봉사로,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이끌며,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지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를 예배하게 하느니라.

149:6.5 (1675.6) “너희의 선조(先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막강하고 신비스러웠음이라. 너희는 그를 찬미할지니 그의 사랑이 견줄 데 없고 자비가 넘치며 그의 진실이 영화로움이라.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일으켜도 그 성격의 고귀함과 올바름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얻고 즐거이 그를 예배하게 하느니라. 의무에 충실하고 애정을 가진 아들은 막강하고 고귀한 **아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느니라. 내가 온 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며, 노예처럼 속박되어 의미 없는 예식을 치르지 말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신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하는 것이 아직도 참말이라. 그러나 빛이 더욱 충만히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한자가 하시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품** 때문에 찬미할 마음이 생기느니라.

149:6.6 (1675.7)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반드시 훈계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가 유익함을 얼마큼 더 이해하게 될 때, 저희는 공경하는 마음과 늘어나는 애정을 통해서 부모가 한 일보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실제로 사랑하는 체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느니라. **아버지**는 자연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이는 무슨 일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다가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의존하고 존경하는 수준을 거쳐서, 사랑을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

149:6.7 (1676.1)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임이라’하고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도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고자 함이라.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배울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들의 최고 특권인 까닭이라.’ 너희의 조상은 ‘**하나님** — 전능한 임금 — 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하나님** — 온통 자비로운 **아버지** — 를 사랑하라.’

149:6.8 (1676.2) “나는 하늘나라를 선포하러 왔나니 거기에는 높고 강력한 임금이 없느니라. 이 나라는 신의 가족이라. 방대한 이 지적(知的) 존재인 형제들의 중심,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아낌없이 섬김 받는 중심이자 우두머리는 내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라. 나는 그의 **아들**이요 너희도 또한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지위로 보면 너희와 내가 형제인 것이 영원히 진실이요, 땅에서 사는 인생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은즉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임금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창조자**인 그를 존경하기를 배우고 너희 어린 영의 **아버지**로 공경하며 자비로운 변호자인 그를 사랑하라. 궁극에는 너희가 더 성숙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아버지**, 사랑이 깊고 전적으로 지혜로운 **아버지**로 예배하라.

149:6.9 (1676.3)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그릇된 개념들로부터 거짓된 겸손 개념이 자라고 많은 위선(僞善)이 솟아나느니라. 사람의 성품과 기원은 흙 속의 벌레일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의 영이 깃들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신성하게 되느니라. 내 **아버지**가 수여하는 영은 분명히 그 신성한 근원으로, 기원이 있던 우주 수준까지 돌아가겠고, 필사자의 인간 혼은 이 깃드는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이가 되었을 것이요, 그 혼은 신다운 영과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앞까지 확실히 올라가리라.

149:6.10 (1676.4) “하늘나라의 영원으로 올라가는 모든 그러한 믿음의 후보자에게 비록 신다운 위엄이 붙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선물을 받는 필사 인간에게 겸손이 정말로 어울리느니라. 의미 없이 비천하게, 보아란 듯 거짓 겸손을 떠는 것은 구원의 근원을 이해하고 영에게서 태어난 너희 혼의 운명을 인식하는 것과 모순되느니라. 마음 속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아주 적절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은 칭찬할 만하여도, 자의식하면서

몹시 눈을 끌고 싶어 겸손을 떠는 위선은 유치하며, 하늘나라의 깨우친 아들들에게 어울리지 않느니라.

149:6.11 (1676.5)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온유함이 영적 기원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혼자만 옳다는 우월감을 자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표현이 되게 하지 말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으라’하였을 때 지혜롭게 말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한자요 영원자**이기는 하여도 또한 ‘뉘우치는 정신과 겸손한 영과 더불어’ 거하심이라. 내 **아버지**는 자만을 멸시하고 위선을 몹시 싫어하며 불의를 언짢아하시니라. 성실의 가치를 강조하고 하늘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원하고 충실히 안내함을 완전히 의지할 것을 강조하려고, 생각하는 태도와 영의 반응을 보여주는 예로서 어린아이를 내가 무척 자주 언급하였으니, 그런 태도와 반응이 필사 인간이 하늘나라의 영적 실체로 들어가는 데 아주 필요하니라.

149:6.12 (1677.1)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마음 속에서는 멀도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솔한 사람을 잘도 묘사하였느니라. ‘거기 있는 사제들은 보수를 받고 가르치며, 거기 있는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는도다. 동시에 저희는 경건함을 고백하고, 주가 저희와 함께 있다고 선포하는도다’ 하고 이른 선지자의 끔찍한 경고를 너희는 또한 읽지 아니하였느냐. ‘마음 속에 해악이 있으면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자, ‘입으로는 칭찬하나 마음에 두 생각을 품는’ 자에 대하여 너희는 좋지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을 믿는 자의 모든 슬픔 가운데,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느니라.”

7. 벧세다로 돌아가다

149:7.1 (1677.2) **시몬 베드로**와 상의하고 **예수**의 승인을 얻어서, **안드레**는 **벧세다**에 있는 **다윗**에게, 여행을 마치고 12월 30일 목요일 아무 때나 **벧세다**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주어 사자들을 여러 전도 집단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비가 오는 그날 저녁때가 되자, 사도 일행을 비롯하여 가르치는 전도사들은 모두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다.

149:7.2 (1677.3) 그 일행은 안식일에 함께 남아 있었고, **벧세다**의 여러 집과 근처 **가버나움**에서 묵었다. 그 뒤에 일행 전부가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나, 친구들을 찾아보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록 2주 동안 휴가를 얻었다. 함께 **벧세다**에서 지낸 이삼일은 정말로 상쾌하고 기운을 북돋아주었다. 고참(古參) 선생들조차 새 전도사들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할 때 교훈을 얻었다.

149:7.3 (1677.4) 이 둘째 **갈릴리** 전도 여행에 참여한 전도사 117명 가운데 오직 약 75명이 실제로 체험하는 시험을 견디었고, 2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봉사에 배치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안드레 · 베드로 · 야고보 · 요한과 함께, **예수**는 **세베대**의 집에 남아 있었고, 하늘나라의 복지와 확장에 관하여 회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